전국 복지네트워크 가시화…역량 강화 과제

지역복지 살리는 교구 복지법인

1. 교구 복지법인 설립현황
2. 교구 복지법인 의미와 전망
3. 교구 복지법인 모범사례와 과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교구본사 복지법인 설립이 가속화되면서 그동안 중앙집중화로 인한 조계종 복지의 각종 난제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구본사 복지법인들이 해당 지역 복지 구심체 역할로 안착될 경우, 지역 기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운영 효율 강화는 물론, 지역별 사회복지 균형 발전 기반 구축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교구본사 복지법인 설립은 최근 몇 년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복지재단이 직접 수탁한 시설 수가 전국적으로 200개를 넘어서면서,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감독에 따른 어려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앙에 집중된 행정체계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애초에 복지재단은 기존에 설립된 교구본사 복지법인을 통해 지역시설 분배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존 법인만으로는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역 행정체계의 중추 고리인 교구본사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컸다. 기존의 교구 복지법인 상당수가 재정적 한계와 스님들의 관심 부족으로 발전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복지 허브로서의 교구본사 역량 부족, 교구본사의 교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관리권한 미약, 종단 · 교구본사 · 말사 간 사회복지 연계사업 미흡 등도 추가 문제로 거론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기존 법인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 교구본사의 추가적인 복지법인 설립을 새로운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각 교구본사의 참여를 독려했다. 교구본사별 법인 설립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황 점검은 물론, 설립 의지가 있는 본사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현재 직할교구를 포함해 14곳에 복지법인 설립의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 본격화돼 설립을 앞둔 곳까지 포함하면 교구본사 총 25곳 중 21곳이 독립 복지법인을 운영하게 된다.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설립은 조계종 복지재단에 과도하게 집중된 불교복지 체계가 교구본사로 분산돼 중앙과 교구의 동반 성장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복지뿐 아니라 지역 내 리 내릴 뿐 아니라 지역에서 사찰 신뢰도가 급상승하는 효과도 얻었다"며 "여기에 오랫동안 지역민과 함께한 사찰의 자체적 노력이 병행되면서 지역특성을 살리고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어 이는 지역화합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구본사 복지법인 안정화로 복지국장 및 전담 직원 등을 채용하는 교구본사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복지법인 역량이 강화되면서 전문적인 사업 진행도 가능해졌다.

최효진 직지사복지재단 과장은 "교구본사 대부분은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배정됐더라도 사찰행정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복지법인 업무에 집중키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차츰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담 인력 채용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의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예산도 크게 늘어났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복지법인 미설립 교구본사의 경우 법인 설립조건으로 전담 인력 배정을 요청하는 등 인적자원 활용에도 힘쓰고 있다. 이미 설립된 복지법인의 경우에도 상근전문가 인력 배정을 권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 설립된 불국사복지재단의 경우 국장 1명과 실무자 1명 등 총 2명이 법인 사무를 전임중이며, 직지사복지재단도 전임직원 2명이 근무 중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보인 스님은 "교구본사 복지법인 설립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접근하는 게 관건"이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계종유지재단 시설의 적극적인 이관 추진과 전문인력 · 전담 사무실 마련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교구본사 복지법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차원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가시적인 성과도 과제로 남았다. 교구본사 복지법인들이 보다 확대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종단차원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근거인 종헌종법 개정은 물론, 중앙과 지역간 명확한 분담체계가 조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가섭 스님(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실질적 행정 집행권을 갖고 산하 시설 및 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기구의 정비와 더불어 종헌과 종령 개정을 통해 그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교구의 차이를 보완하고 그 교구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통해 교구본사가 교구 내 사회복지의 조력자 · 매개체로서의 명확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도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교구 인준을 받아 운영하는 가톨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교구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사회복지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구본사가 설립하는 복지법인이 자체 시설운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교구 여타시설들을 지원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교구 분산으로 중앙과 동반 성장 가능
지역 내 교구본사 입지 다지는 효과도
종헌종법 개정 통한 명확한 업무 분배
교구자치 시대 부합한 복지 전개 필요

사찰도 종부세 폭탄…"불이익 없게 이의신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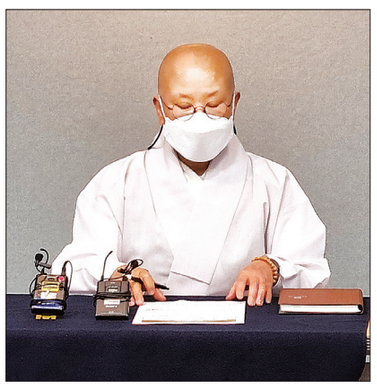
조계종 재무부 29일 기자회견
법인 주택과세 강화하며 '불똥'
"부과사찰 15일까지 이의신청"

조계종 제3교구본사 소속 A사찰은 부속 토지 등이 있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왔다. 지난해에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를 포함해 1억 6000여만 원을 납부했지만, 올해에는 변경된 세법에 따라 4억 8000여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지난해보다 300% 오른 수치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소속 B사찰은 지난해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사정이 다르다. 농특세를 포함해 15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부과된 종부세가 사찰에도 적용됐다. 기존 부과대상인 사찰들의 납부 세금은 최대 12배까지 증가한 경우도 있었고, 신규로 부과된 사찰들도 30~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재무부(부장 탄하)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부과 종부세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밝혔다.



조계종 재무부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대상 종부세 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찰 대상 종부세가 대폭 증가한 요인에 대해 조계종 재무부는 "법인(단체)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실제, 주택 부지로 임대하고 있는 사찰 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종부세가 부과됐으며, 올해부터 '6억 원 기본공제 적용 배제'가 시행되면서 신규로 과세 대상이 된 사찰들도 생겨났다. 세율 인상과 세부담상한선 배제도 사찰 대상 종부세 금액이 수직 상승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에 조계종 재무부장 탄하 스님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사찰은 공익법인 등으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 15~30일 진행한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아 신규 · 증액 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찰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은 관련법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못해 납세의무자인 사찰에 혼란을 초래케 한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나마 종합부동산세 이의신고 기간인 12월 1~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인 점이다.

탄하 스님은 "종단은 국세청과 협의해 이의신고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경정(취소 및 감액)해 재고지토록 했다"면서 "현재 부과된 사찰의 종합부동산세는 일반누진세율 적용 시 과세표준액 6억 원 이하일 경우 납부 자체가 취소되며,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초과라도 일반누진세율 적용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종단 소속 사찰들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면서 "행정 절차가 어렵다면 총무원 재무부로 문의해달라. 성실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황이지만, 매년 종부세 관련해 종단과 일선 사찰들이 이 같은 몸살을 앓아야 해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 적용 신청'을 매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재무부는 "현행 종부세는 비생산적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도입된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사찰의 공익적 역할과 지역 사회 기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익법인(단체)에 대한 합리적 적용과 전통문화 유지 계승을 위한 전통사찰 적용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1월 27일 서울 AW컨벤션센터 앞에서 개최된 이사장 사퇴 촉구 법회 및 반대집회.

'성추행 이사장' 4선 사태에 반발 확산

11월 27일 만해예술제서
법진 이사장 사퇴 촉구

(재)선학원 이사회가 성추행 전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법진 이사장을 재선출한 데 따른 반발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선학원 소속 분원의 스님과 신도들이 '법진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법진 이사장의 즉각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을 포함한 사부대중은 11월 27일 선학원 만해예술제가 진행되는 서울 AW컨벤션센터 앞에서 법회 및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만해예술제는 선학원 설립 100주년 기념법회에 이은 대규모 행사로 선학원 이사 스님들과 정관계 내빈들도 참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회에는 전국 각지의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과 각 분원 신도 6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경기지역 뿐 아니라, 경남, 강원도, 충청도 등 상당수의 분원이 참여하는 등 예상 인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성추행범 법진, 만해 스님 욕되게 하지말라" "성범죄 전과자가 선학원 이사장 웬말이냐" "성범죄 이사장에 설립조사 통곡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청정승풍 회복을 촉구했다. 특히 △인적쇄신을 통한 청정승풍 확립 △선학원 100주년을 맞아 창립정신 회복 △법진 이사장의 선학원 일체직책의 사퇴 △대중공의 수렴을 통한 선학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선학원미래포럼 심원 스님은 대표낭독한 고불문에서 "여직원 성추행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법진 이사장이 3번의 임기를 채우더니 또다시 4선 이사장의 자리에 앉았다"며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2021년 오늘, 우리 선학원은 실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참담함을 전했다.

송지희 기자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대, 올해 118명 졸업

아름다운동행, 11월 26일 졸업식
개교 5년차…총 240명 인재 배출

개교 5주년을 맞은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세 번째 졸업식을 갖고 118명의 농업 인재를 배출했다.

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은 11월 26일 탄자니아 현지에서 졸업식을 진행했다.〈사진〉 올해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졸업생은 118명이다. 현재까지 배출된 240여 명의 졸업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탄자니아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활동 중이다.

이날 졸업식은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인사말씀, 축사, 졸업장 수여, 기념 촬영 등으로 이루어졌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문수사 주지 태성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과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지부 법인처장 성현 스님이 참석해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앞날을 격려했다.

졸업식에서는 지난 5년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 재임하며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학교 발전을 위해 힘쓴 교사 3명의 퇴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학생들은 아리랑 노래에 맞춰 특별공연을 펼쳐 감동을 더했다.



수석 졸업으로 상장을 받은 소피아 아바스(Sophia Abas)는 "지난 3년 동안 우수한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졸업 후에도 학업을 이어가 보리가람농업기술 출신의 농림부 관료가 되는 게 꿈이다.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졸업식 후에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 현판식도 진행됐다. 세종학당은 11월부터 20명 정원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글과 한국 불교문화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교 5년을 맞은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매해 발전을 거듭하며 현지에서 인정받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불교 위상도 높이고 있다. 특히 신규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한글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2016년 개교 후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이번에 세 번째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었다"며 "한국 후원자들의 꾸준한 지원 덕분이다. 앞으로도 지구 반대편에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단은 졸업식에 앞서 아름다운동행이 2014년부터 8년째 진행하고 있는 해피론 사업장을 방문했다.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인근에 있는 므와송가 초등학교 1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축구공과 배구공을 선물하고 직접 옥수수죽과 빵을 배식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했다.

아름다운동행에서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운영비와 장학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고시위원회 승가고시 일정 확정

11월 29일 공고

내년도 조계종 승가고시 일정이 확정 · 발표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수진)는 11월 29일 '불기 2566(2022)년도 각급 승가고시 일정'을 공고했다.

조계종 교육원이 정한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한 행자들이 응시할 수 있는 5급 승가고시는 상 ·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는 내년 3월 4일, 하반기는 8월 28일에 치러진다. 장소는 12월 중 공지될 예정이다.

조계종 교육원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미 · 사미니가 응시하는 4급 승가고시는 내년 3월 11일 중앙승가대에서 진행된다. 3급 승가고시는 4월 8일 중앙승가대에서 치러진다. 2급 승가고시는 내년 9월 30일 중앙승가대에서, 1급 승가고시는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은 "각급 고시일정은 코로나19,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사 · 마을센터, 상생공동체로"

12월 2일 임직원과 첫 상견례
지현스님, 센터장 임명장 수여



"조계사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상생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계사(주지 지현)가 새롭게 수탁운영을 시작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임직원들과 12월 1일 첫 상견례를 갖고 "상생과 화합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사진〉

상견례는 미래청 2층에서 진행됐으며, 운영기관과 시설간 상호협력과 운영활성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현 스님은 손우정 센터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직원들과 함께 공동체 사업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장과 함께 친필로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상견례 현장에서 센터 임직원들은 새 운영기관인 조계사를 향한 더없는 신뢰와 기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임직원들은 지현 스님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 "어려운 시기 기꺼이 마을센터와 함께하기로 결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공동체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길 기대한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진심어린 마음을 전했다.

송지희 기자